## 제목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 로그라인

집안에 ‘무엇’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 가족과 나를 위하여 ‘그것’을 없애야 한다.

## 기획의도

아동학대라는 소재를 피해자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봄으로써 관객이 이질적인 느낌을 들게 하여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들게 하고 싶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다.

## 인물

박성윤 (31 / 남 / 아빠 / 직장인)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우연히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성윤. 육아에 신경을 안 쓰고 가정에 대한 사랑보다 술을 좋아하고 어릴 적부터 야구를 하여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결혼 후에는 골프를 즐겨해서 집안에 골프채가 여러 대가 있다. 집안의 가장이자. 정수의 친구가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가족에 무관심하다. 매우 직설적이고 화가 많다.

박정수 (7 / 여 / 딸)
코끼리를 좋아하고, 옆집 사는 우주랑 친하지만 한 번도 집에 초대하여 논적은 없다. 항상 놀이터나 어린이집에서만 놀고, 몸에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어 보인다.

이지현(25 / 여 / 아내)
어릴 적 원하지 않는 임신과 결혼 생활로 항상 주눅 들어있고, 성윤의 눈치를 많이 본다. 가족을 아끼고, 집안에 가장 힘이 없다. 성윤을 무서워해 큰 소리 한번 못한다. 집에선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 취급을 받으며 존재감 없이 살고 있다.

김우주 (7 / 남 / 정수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옆집 아이)
멀리서 일하시는 기러기 아버지가 있는 집안 아이. 정수네 가정사는 모르고 단순히 어린아이 시점으로 가족 매일 밤 집에 아빠가 있고 항상 시끌버적한 옆집 정수네를 부러워한다.

# 시놉시스

어린이집에서 정수와 우주가 대화 중이다. 우주는 정수에게 너희 집은 매일 집에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고 말하며 옆구리를 찌른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시발! 이라고 소리친다. 선생님에게 못된 말을 쓰지 말라며 혼이 난다.

정수는 연필로 **코끼리 그림**을 엎드려서 그린 뒤, 침대 머리 위에 붙어둔다. 그걸 본 성윤은 다음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는 길에 구멍가게에서 **크레파스 하나**를 사서 집에 간다.
정수는 행복해한다. 그날 밤 정수가 그린 그림은 검은 형체에 빨간 입이 찢어진 기괴하고 섬뜩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였다. 딸에게 그림을 귀엽다고 말하며 웃어넘기는데 기분은 좋지 않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자는 모습을 보고 어젯밤의 그림을 살펴보는데 그 섬뜩한 그림은 없고 침대 머리 위 코끼리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다. 주인공은 피곤해서 어젯밤 잘못 본 것으로 생각하며 회사에 출근하는데 회사 서류들 사이 어제 봤던 섬뜩한 그림이 있다. 주인공은 그 그림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고 오는데 그 그림이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성윤은 다시 그림을 찢으며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야 주인공은 마음이 편해진다.

성윤은 퇴근하고 집에 간다. 정수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비슷한 분위기의 섬뜩한 가면을 쓰고 성윤을 놀래킨다. 성윤은 정수에게 충동적으로 뺨을 때리며 화를 낸다. 그리고 정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피곤하다고 말한 뒤, 잠이 드는 성윤은 악몽을 꾸고 아침 일찍 눈을 뜬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지난밤에 딸에게 한 행동이 미안해서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 정수의 방문을 여는 순간, 성윤은 방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괴하고 이상한 그림들을 보고 놀라 자빠진다. 정신을 차리고 딸의 방에 들어가 그림들을 전부 때서 자신이 들고 출근한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옥상에서 성윤은 그림들을 다 불태운다. 그림들이 다 탄 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나서 사무실의 본인 자리로 내려간다. 그 순간 집에서 걸려 오는 전화 받아보니 아내가 딸의 방에 있던 그림들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 그리곤 무슨일 있는 것 아니냐며 말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성윤. 그는 가족들이 다 이상해 졌다고 생각하며 그날 사 왔던 크레파스를 떠올린다....

# 시나리오

## S#1 어린이집 - 실내 / 낮

어린이집에서 정수와 옆집 친구 우주가 나란히 앉아 가족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수의 그림에는 텅빈 집안에 활짝 웃고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가 그려져 있다.
그에 비해 우주의 그림에는 아버지가 없고. 엄마랑 아이만 손잡고 꽃밭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우주**
(크레파스를 내려 놓고, 처다보며) 정수야! 난 너희 집이 부러워!

**박정수**
(묵묵히 그림을 그리다가)왜?

**김우주**
(정수를 바라보며) 너희 집엔 매일 아빠도 있고, 밤마다 활기차고 시끌버적하잖아.

우주는 정수에 반응이 크게 없자 정수의 옆구리 찌른다. 이에 정수는 깜짝 놀라며 반응한다.

**박정수**

(깜짝 놀라 몸을 들썩이며)아 시발!

순간 어린이집 내부에 정적이 흐르고 이에 선생님이 정수에게 다가온다.

**어린이집 선생님**
정수야!! 누가 그런 나쁜 말 사용하라 했니!!

**박정수**
(고개를 떨군채 묵묵히 그림을 바라보며)아.. 죄송합니다..

## S#1.5 타이틀 시퀀스

하얀 도화지에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다.

## S#2 집안 정수의 방 - 실내 / 밤

정수는 방에서 연필로 **코끼리 그림**을 엎드려서 그린 뒤, 침대 머리 위에 붙어둔다. 성윤은 문틈사이로 정수 방에 있는 코끼리 그림을 본다. 색이 없는 코끼리 그림을 본 성윤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다.

## S#3 집 가는 방향 골목길 - 실내 / 밤

다음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는 성윤,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 앞에 있는 구멍가게를 바라보다가 들어가선 가장 저렴한 **크레파스 하나**를 사서 집에 간다. 표지에 약간 꺼림직한 그림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갈 길을 간다.

## S#4 집안 - 실내 / 늦은 밤

집에 복귀하니 90도 인사로 반겨주는 정수와 지현, 성윤은 정수에게 크레파스를 준다. 기뻐하는 정수를 뒤로하고 맥주를 마시며 밥을먹는다.
정수는 빠르게 밥을 먹고 크레파스를 들고 방에 들어간다
성윤은 식사를 마치고 지현은 묵묵히 뒷정리한다.
성윤은 씻고 방에서 쉬다가 정수의 방에 들어간다.

## S#5 정수의 방 - 실내 / 밤

정수가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걸 바라보고 다가가는 성윤

**박성윤**
(방문에 얼굴을 살짝 내밀며) 정수 무슨 그림 그리니?

불러 보지만 집중을 한 듯 아무 말 없는 정수...
직접 다가가서 가까이 보니 검은 물체에 빨간 눈 찢어진 입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수.
성윤은 순간 흠칫하고 표정이 일그러지지만 차분하게 다시 물어본다.

**박성윤**
(정수가 아닌 그림을 뚫어저라 쳐다보면서) 와~ 잘 그렸다. 누구 그린 거야?

**박정수**

(엎드려 그림에 대고 말한다) 아기....

**박성윤**

응?? (놀란 듯 정수를 바라본다)

**박정수**

아기코끼리요.

**박성윤**

귀엽네...하..하하..  적당히 그리고 자야지?

**박정수**

네~

그날 밤 정수가 그린 그림은 도저히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였다. 정수에게 그림을 귀엽다고 말하며 웃어넘기는데 기분은 좋지 않다. 자신이 많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한 성윤은 방에 들어가 잠에 든다.

## S#6 성윤의 직장 - 실내 / 아침

아침에 일어난 성윤은 출근 준비하다가 문 틈 사이로 정수가 자는 모습을 보고 어젯밤의 그림이 생각나서 들어가 살펴보는데 정수는 벽을 바라보며 자고 있다. 어제의 섬뜩한 그림은 없고 침대 머리 위 코끼리 그림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 성윤은 피곤해서 어젯밤 잘못 본 것으로 생각하며 회사에 출근한다.

## S#7 성윤의 직장 - 실내 /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은 성윤 회사 서류들 사이 어제 봤던 섬뜩한 그림이 있다. 성윤은 그림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고 오는데 그 그림이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성윤은 다시 그림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진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자리에 돌아가 보니 누가 찢어둔 그림을 하나하나 붙여서 성윤의 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그림을 보고 주변을 살핀 뒤 일단 접어서 가방에 넣어둔다.

## S#8 퇴근길 - 실외 / 밤

성윤은 퇴근하면서도 아까 접어준 그림을 보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 앞에 또 찢어 버린다.

**박성윤**

(매우 인상쓰며 혼잣말로) 시발 재수 없어...

버려진 종이 쪼가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걸어간다.

## S#9 집안 - 실내 / 밤

문을 열기 직전 섬뜩한 기분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성윤.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조용하여 아무도 없는 듯하다. 피곤함에 쩔어서 짐을 하나하나 풀며 부엌으로 향하는 성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먹는데. 성윤의 방이 서서히 열린다.
성윤은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본다.
안을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순간 문 뒤에 섬뜩한 그림을 마주한다.

**박성윤**

시발! 뭐야!!!

그림을 보고 놀란 성윤이 팔을 휘두른다. (손바닥에 무언가 맞는 소리가 난다.)
그림이 떨어지고 보이는 것은 쓰러져있는 정수의 모습.
순간적으로 놀라서 정수의 뺨을 때린 것이다. 그리곤 정수에게 화를 낸다.
쓰러진 정수의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에 파랗게 든 멍이 보인다.

**박성윤**

(허리를 곳곳히 핀상태로) 너 지금 아빠 방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큰소리에 놀라 지현이 급하게 뛰어온다. 지현도 한 손에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지현**

(허리를 굽히며 들어와 정수를 안아준다) 죄송해요.. 애가 성윤씨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정수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스스로 몸을 안는다. 그 모습을 본 성윤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수에 다가간다.

**박성윤**

(정수 옆 그림과 지현이 들고있는 그림을들 바라보다며)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림 가지고 나가 주겠니?

**이지현**

네.. 죄송합니다 (그림을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갖고 나간다)

방에 혼자 있게 된 성윤 순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쥔다.

**박성윤**

[우리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흐른다. 최근 들어 정수와 지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손에 묻어있는 크레파스자국을 보여주곤 잠에 든다.

## S#10 성윤의 방 - 실내 / 아침 새벽

악몽을 꾼 듯 괴로워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성윤. 눈을 번쩍 뜨곤 몸을 일으킨다. 어젯밤에 씻지도 않고 잠든 탓에 꼬질꼬질해진 성윤. 화장실에 가보니 자기 얼굴과 손에 검은 얼룩이 있는 것을 보고 마구 씻다가 순간 어젯밤에 정수에게 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생각나,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 정수의 방문을 연다.

## S#11 정수의 방 - 실내 / 아침

성윤은 방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괴하고 이상한 그림들을 보고 놀라 뒤로 뒷걸음질 친다.

**박성윤**

(혼잣말 크기로 눈을 깜박이며) 이게 다 뭐야...

이에 정신을 차리고 정수의 방에 들어가 그림들을 전부 때서 자신이 챙기고 출근한다. 성윤이 방을 나가기 직전 정수의 모습은 웅크리며 덜덜 떠는 듯 하지만, 성윤은 눈치채지 못한다.

## S#12 성윤의 회사 옥상 - 실외 / 아침

회사 건물에 도착한 성윤은 사무실보다 옥상에서 흡연장을 방문한다. 그리곤 가방 안에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전부 다 불태운다.

**박성윤**

[재수 없어.. 왜 이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왜.. 혹시 정수에게 귀신이 들린 건가?]

기괴한 그림들을 타들어 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 사무실로 내려간다.
성윤의 뒷모습에 불타는 그림은 성윤이 보던 기괴한 그림이 아닌 정수 침대 머리 위에 있는 코끼리 그림이 타고 있다.

## S#13 성윤의 사무실 - 실내 / 낮

사무실의 본인 자리로 도착한 성윤. 그 순간 지현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박성윤**

여보세요?

**이지현**

(쩔쩔대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박성윤**

왜? 나 출근했다.

**이지현**

아 알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정수 방 안에 있는 그림들 못봤어요?

**박성윤**

응? 왜 못 봤는데?

성윤은 아무것도 모른 척 거짓말을 한다.

**이지현**

아... 네 알겠어요.

**박성윤**

어 그래 끊...

성윤을 말을 끊고 말을 이어가는 지현.

**이지현**

(급하게 말을 더듬으며) 저기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성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날 지현도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말한다.

**박성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성윤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생각에 빠진다. 언제부터 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회상하다가. 정수 방안에 머리 위에 있던 코끼리 그림 이후 날부터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하다
크레파스를 떠올린다. 그 순간 급하게 다시 지현에게 전화를 거는 성윤

**박성윤**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지금 정수 뭐 하고 있어?

**이지현**

집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성윤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버럭 소리 지른다.

**박성윤**

야 지금 당장 하던 일이랑 재수 없는 그림 멈추고 정수랑 손잡고 친정 다녀와 알았어?

**이지현**

네?

**박성윤**

(이를 악물며) 잔만 말고 가라고!!!

**이지현**

네.. 알겠어요.. 그럼 저녁....(끊켜버린 전화)

전화를 끊어버리는 성윤. 화를 가라앉히고 퇴근 시간을 기다린다.

## S#14 집 가는 길 성윤 - 실외 / 밤

매우 흥분한 상태로 집 앞에 도착한 성윤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주먹을 꽉 쥔 채로 집에 들어간다.

## S#15 집안 - 실내 / 밤

집에 도착한 성윤 전등을 키자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그림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들을 보고 흥분을 참지 못한다.

**박성윤**

(집안에 들어가자마 방방 뛰어다니면서) 이런 시발... 진짜 하지 말라니까..

붙어 있는 그림들을 보고 하나하나 때서 찢다가 바닥에 널고라니 있는 크레파스를 보고 그림들 덮어씌우기 위해 덧칠하기 시작한다. 크레파스가 부서지면 또 다른 크레파스로 실성한 듯 웃으면서 계속 그림을 망치던 중. 집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했던 정수와 지현이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 들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온 순간 두 모녀가 보는 시선은 귀여운 그림들 위에서 그림을 계속 망치고 있는 성윤의 모습이 보인다. 지현은 힘이 풀려 장바구니를 떨어트리고. 과일 하나가 굴러 성윤에게 다가간다.
성윤은 계속해서 크레파스를 부숴가며 하나하나 지워가다가 끝내 마지막 크레파스마저 부서지고 자기 손을 떨면서 더러워진 것을 보고 주변에 지우지 못한 남은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과일 하나가 성윤의 눈앞에 나타난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있는 두 모녀를 보고 버럭 화를 내는 성윤.

**박성윤**

(바닥을 치면서) 내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지!!!!!

정수는 몸을 떨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기 시작하고 지현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떨고만 있다.

성윤이 귀여운 그림들 위에서 일어나 자신에게만 계속 보였던 검은 얼굴형에 빨간 눈 찢어진 입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집안 구석에 골프채를 들며 부둥켜안고 가만히 떨고 있는 모녀에게 다가간다.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만 집안 조용하게 울린다.

**박성윤**

(소리 없는 입모양만) 시발...

골프채를 끌면서 다가가는 성윤. 모녀 앞에 서서 골프채릴 내리치려는 순간 바로 옆에있는 거울이 눈에 들어온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온몸이 검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걸본 성윤은 자신의 손을보고 뒤로 돌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 본다
지난밤 정수의 가면은 작은 코끼리 였는지 검은 괴물인가?
자신이 찢어버린 그림이 검은 괴물인지 파란나비 그림이였는가?
자신이 본 진짜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스쳐 지나치며 머리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한쪽눈에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다시 뒤로 뒤돌아보는 성윤.

이에 화면이 꺼지고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는 유리깨지는 소리와 사라진다.